

다중사회정체성 맥락에서 평가자 집단 유형이 동남아이주민들의 자기고정관념화에 미치는 영향*

황지현**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김혜숙***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다중사회정체성 맥락에서 정체성의 특출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이 동남아이주민들의 자기고정관념화에 미치는 영향과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남아이주민 실험 참여자들에게 한국 혹은 고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도록 하여 정체성(한국인 대 동남아인)의 특출성을 조작한 뒤, 평가자 집단 유형(한국인 평가자 대 동족의 평가자)이 제시된 취업장면 시나리오를 읽고 암묵적·명시적 자기 유능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예상대로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참여자들은 면접장면에서 평가자가 동족일 때보다 한국인 평가자일 때 자기 유능성(자기 면접점수/ 자기 유능성)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반면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참여자들은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자기 유능성 평가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정체성의 특출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자기고정관념화는 명시적 측정에서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다회귀분석 결과, 평가자가 한국인일 때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참여자의 자기 면접점수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이 유일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아이주민들의 자기고정관념화가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다문화사회, 동남아이주민, 정체성, 자기범주화, 자기고정관념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끊임없이 알고 싶어 하고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기개념은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며 사회구조 체제 및 타인들의 생각을 반영하게 된다

(Cooley, 1902; Kinch, 1963; Mead, 1934). 다시 말해, 자기개념은 개인의 독립적인 독특한 성질로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사회적 맥락에 따라 주어지는 사회규범이나 타인의 기대 또는 인식에 맞춰 자기를 평가함으로써 얻게 된다는 것이다.

* 본 연구는 2009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지정우계지원사업(NRF-2009-328-B00088)에 의해 수행된 "다문화시대 한국인과 이주민의 심리적 적응과 삶의 질"연구 중의 하나임.

** 이 논문의 일부는 황지현의 2010년 아주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 논문을 바탕으로 하였음

*** 교신저자: 김혜숙,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사회대 심리학과, E-mail: hsk@ajou.ac.kr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이 한 집단 또는 범주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자기개념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전지식이 없거나 처음 만나는 타인을 지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가 속한 집단이나 범주에 의거하여 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이(Hamilton, Sherman, & Ruvolo, 1990), 자신 또한 어느 범주를 기반으로 하여 스스로를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자기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Tajfel & Turner, 1986; 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 따라서 자신을 고유한 개인이 아닌 집단 범주에 의거하여 지각하는 자기범주화는 자기고정관념화의 기반이 된다(Oakes, Haslam & Turner, 1994; Turner & Oakes, 1989). 자기고정관념화(Self-stereotyping)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범주에 대해 사회나 문화, 타인이 기대하는 특성을 자신의 특성으로 받아들여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자신이 속한 집단 혹은 범주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고정관념이 자기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즉 자기고정관념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남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동남아인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들의 사회적 고정관념이 그들의 자기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고정관념화 과정을 살펴보고자하였다.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인들의 정체성과 자기개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와 그들의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종차별

국제결혼의 증가와 노동력 유입 등 세계화 흐름에 따른 인적 교류의 확산 및 활성화를 통해 한국사회는 비야호로 다문화시대에 들어섰다. 행정안전부(2010)에서 보고한 외국인 이주민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은 이미 110만 명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 추세는 앞으로 더욱 증가함으로써 더 많은 인종들과 다양한 민족들이 한국사회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인종

적 차별은 여전히 만연하다. 몇 해 전,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던진 한국인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한국일보, 2009, 11, 27). 이는 이민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인종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인종차별에 의한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의 어려움은 많은 보고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결혼이주자들은 한국인들로부터의 얼굴 표정이나 눈빛 등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으며, 안정적 월급을 받는 직종에 취업이 어렵고, 주변의 타인들로부터 무시와 불신을 직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양계민, 2009에서 재인용).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어머니들 역시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비롯한 사고방식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외국인이라는 편견과 차별로 인해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학습부진과 더불어 친구관계, 정체성 혼란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국민일보, 2010, 5, 19). 특히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 중 중국 동포들보다 한국인과 외모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다른 나라 출신 여성들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특히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 중 중국 동포들보다 한국인과 외모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다른 나라 출신 여성들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이러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차별원인으로는 한국인들의 순혈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 또는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현실에서 갖추어야 할 태도 및 대책 미비 등과 같은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근본적 인식과 이해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2011)과 양계민(2009)의 연구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각각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정체성 위협 혹은 현실적 갈등인식을 제안하고 있다. 즉,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유입으로 인해 한국인으로서의 우월한 정체성을 보호하고 정체성의 희석에 대한 위협감이나 혹은 제한된

자원을 그들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한국인들은 여전히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편향된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고아라, 2005; 임성택, 2003). 특히, 인종범주에 따른 한국 대학생들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각 인종 범주집단(백인, 한국인, 흑인, 동남아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를 측정할 결과, 한국인은 강한 내집단 선호를 보였으며 외집단에 대해서는 백인, 흑인, 동남아인 순의 호감도를 나타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명시적 태도뿐만 아니라, 암묵적 태도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남으로써 특히 동남아인에 대해 비선호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노경란, 방희정, 2008). 외집단에 대한 한국 성인들의 태도와 유사하게, 초등학교 아동들 역시 명시적 수준에서 강한 내집단 선호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백인에 대한 선호적 태도와 대조적으로, 흑인과 동남아인에 대해 비선호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암묵적 태도에 있어서는 성인들과 달리, 동남아인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가 백인에 대한 태도와 유사한 수준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예외적인 결과를 보였다(노경란, 방희정, 2009).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호감도가 낮은 동남아이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은 무엇일까?

사회적 지각(social perception)을 기술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 차원은 따뜻함과 유능함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Asch, 1946; Fiske, Cuddy, & Glick, 2007; Wojciszke, 2005). SCM(stereotype content model)에 따르면, 집단 간 지각도 이와 마찬가지로 집단 간의 구조적 관계로부터 이 두 가지 차원에 따라 고정관념이 발생한다고 보았다(Fiske, Cuddy, Glick, & Xu, 2002). 이러한 Fiske 등(2002)의 분석 체계를 적용하여 우리 사회의 여러 주요 다수집단(즉, 지위가 높은 집단)과 소수집단(즉, 지위가 낮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유능성과 따뜻함 차원에서 비교 검토한 결과, Fiske 등(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지위가 높고 경쟁적인 집단들에 대해서는 유능하지만 따뜻하지 않다고 평가한 반면, 지위가 낮고 덜 경쟁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덜 유능하지만 더 따뜻하다고 평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보는 외국

인 노동자의 경우 신체장애인, 탈북자, 영세민과 함께 가장 유능하지 않은 집단으로 평가되었으며, 동시에 가장 따뜻하다고 지각되는 집단으로 평가되었다(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 2003).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다수집단의 사람들은 기존의 체제와 자신의 높은 지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한편, 소수집단의 구성원들 또한 자신의 낮은 지위 부여나 부정적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여 내재화 한다는 것이다(Jost & Banaji, 1994). 한국사회의 소수집단인 동남아이주민들 역시 주류집단인 한국인들의 동남아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실제로 자신을 낮은 지위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부정적 평가를 수용하여 자기개념이 부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 상사 혹은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한국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동남아인들은 유능성이 낮다'라는 내집단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자신이 확인시킬 수도 있다는 불안과 부정적 고정관념의 활성화, 그리고 작동 기억(working memory) 감소 등으로 실제 개인의 수행이 악화되는 고정관념 위협(stereotype threat)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같은 소수집단이지만 미국 사회에서의 흑인들의 경우에는 꽤 오랜 역사동안 주류집단으로부터 받아 온 인종차별과 '흑인들은 지적능력이 낮다'라는 부정적 고정관념에 대항하여 이를 거부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긍정적 자기개념을 유지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보면, 흑인 참여자들은 자기 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고정관념보다 가까운 타인(즉, 동족)들의 집단 인식을 받아 들여 보다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inclair, Hardin & Lowery, 2006).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이주민들의 경우는 이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주의 역사가 짧고 커뮤니티가 형성될 만큼의 사회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주류사회의 비하적인 사회인식을 수용하여 부정적 자기개념

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상황적 맥락에 의해 동남아이주민들이 가지는 정체성의 특출성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동남아이주민들의 부정적 자기고정관념화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이주민들의 부정적 자기고정관념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중사회정체성 맥락에서의 자기고정관념화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기개념이라는 것은 개인의 독립적인 독특한 성질로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사회규범이나 타인의 기대와 인식에 맞추어 정의되며 그에 따라 자기를 인식하고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자신을 어느 한 집단 또는 범주의 구성원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자기개념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와 관련된 이론으로 자기범주화 이론(Oakes 등, 1994; Turner 등, 1989)이 있는데, 이 이론은 사회정체 이론(Tajfel, 1982)을 보완한 이론으로 보다 인지적인 측면에서 범주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즉, 사람들은 외집단 구성원과의 차이가 내집단 구성원과의 차이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지각되거나 혹은 범주의 특성에 대한 지식 및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의미가 자신에게 적용가능한 경우, 자신을 집단 구성원으로서 집단 범주에 의거하여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주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고유한 개인보다 사회집단의 한 전형(exemplar)으로 인식하는 비개인화(depersionalization)가 일어난다. 이 때,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사회, 문화 또는 가까운 타인이 기대하고 있는 특성을 자신의 특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자기고정관념화라고 한다.

특히, 이러한 자기고정관념화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Sinclair 등(2006)은 다중사회정체성 맥락에서 특출해지는 사회정체성에 따라 자신의 특성을 특출해진 사회 집단의 특성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은 성별보다 민족성이 특출해지는 경우,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수학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특성을 자신의 특성으로 인식함으로써 성별이 특출해졌을 때보다 자신의 수학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동일한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이 민족성보다 성별이 특출해지는 경우에는 '여자는 남자보다 언어능력이 우월하다'라는 여성에 대한 일반적 고정관념을 인식하여 민족성이 특출해졌을 때보다 자신의 언어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중사회정체성 맥락에서 정체성의 특출성이 자기고정관념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이와 같은 선행연구(Sinclair 등, 2006)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동남아인'이자 '한국사회구성원'으로서 이중정체성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동남아이주민들의 다중사회정체성 맥락에서 특출해지는 정체성(동남아인 정체성 또는 한국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하 한국인 정체성))이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비교맥락에 따른 자기고정관념화

자기고정관념화의 기반이 되는 자기범주화 이론은 자신과 타인을 내·외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사회적 맥락에 상당부분 의존하며, 비교집단에 따라 자기개념이 상대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고유한 개인(즉, 개인 정체성) 또는 집단 구성원(즉, 사회 정체성)으로서 자기 범주화하는 것은 준거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내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비교할 경우, 개인정체성 수준에서 자신을 범주화함으로써 다른 내집단 구성원들로부터 개인적 차이를 통해 고유한 자신을 정의한다. 반면 외집단 구성원들과 비교할 경우, 자신을 사회정체성 수준에서 범주화할 것이고 따라서 집단이 갖는 맥락에 따라 자기정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집단 간 비교과정에서는 외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으로 내집단에 자신을 범주화함으로써 자기지각은 비개인화될 것이며, 이러한 자기고정관념화 과정에 의해 내집단을 정의하는 특성에 의거하여 자신을 정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Turner & Onorato, 1999).

이와 관련하여 Heine, Lehman, Pen과 Greenholtz (2002)는 준거집단에 따라 개인주의(individualism)에 대한 동아시아인들과 북미인들 간 자기정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인 참여

자들은 다른 문화집단의 구성원인 일본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도록 하였을 경우(즉, 집단 간 비교맥락에서) 일본인들보다 자신을 더 개인주의자로, 그리고 덜 집합주의자로 나타냈다. 그러나 같은 문화 집단인 캐나다인과 자신을 비교했을 경우(즉, 집단 내 맥락)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비교하는 준거집단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집단 멤버십과 비교맥락이 관계적 자기(relational self-construal)와 주도적 자기(agentive self-construal)를 정의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Guimond, Chatard, Martinot, Crisp과 Redersdorff(2006)의 연구에서도 보면, 집단 내(즉, 같은 성별 내) 비교조건에서는 성별에 따른 자기평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집단 간 비교조건에서는 대부분의 여성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한 남성들은 자신을 더 주도적이라고 평가하고 대부분의 남성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한 여성참여자들은 자신을 더 관계 지향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비교맥락에 따른 자기개념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집단 간 비교맥락에서 성별이 관계적 자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내집단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인식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남성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관계적 자기를 평가한 여성 참여자는 남성과의 비교를 통해 '여성'이라는 사회정체가 특출해짐으로써,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특성으로 자신을 인식하여 자신을 더 관계 지향적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여성과 자신을 비교한 여성 참여자의 경우, 내집단 구성원과의 비교가 '여성'이라는 사회정체보다 '나'라는 개인정체를 더 특출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특성을 자신의 특성으로 반영하지 않아 성별에 따른 관계적 자기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다중사회정체성 맥락에서 특출해진 정체성(동남아인 또는 한국인)과 더불어 평가자 집단유형(한국인 평가자 또는 동족의 평가자)이 동남아주민들의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 볼 것이다. 이 때, 평가자 집단 유형은 동남아주민들이 자기를 정의할 때 준거집단으로 작용하여 정체성의 특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적 요인이다. 따라서 한국인 평가자의 경우에는 인종에 기반한 동남아

주민들의 사회정체성을 더욱 특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동족의 평가자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동남아주민들의 개인정체성이 더욱 특출해지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즉, 한국인 평가자)에는 특출해진 사회정체성에 따라 자기고정관념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그에 따라 자기 유능성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동족 평가자의 경우에는 개인정체성이 특출해지므로 사회정체성에 따른 자기고정관념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주민들의 다중사회정체성 맥락에서 직·간접적으로 특출해진 정체성이 그들의 자기고정관념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암묵적 자기고정관념화 (Implicit self-stereotyping)

암묵적 자기고정관념화란, 의식 밖의 수준에서 내집단 고정관념을 자기개념으로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집단과 관련된 고정관념 특성들과 자기개념을 암묵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이다(Greenwald, Banaji, Rudman, Franham, Nosek, & Mellott, 2002).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긍정적인 여성의 특성(예: 따뜻한, 온화한)과 자기개념을 연합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Greenwald & Farnham, 2000), 남성들은 여성보다 힘(Power)과 관련된 속성을 자기개념에 더 많이 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udman, Greenwald, & McGhee, 2001). 또한 Lun, Sinclair와 Cofburn(2009)의 연구에서는 여성과 백인 미국인들이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정적 특성들에도 자기와 내집단의 고정관념적 특성들을 연합함으로써, 긍정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정적 특성에 대해서도 암묵적 자기고정관념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남아주민들 또한 다중사회정체성 맥락에서 특출해진 정체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자기고정관념화가 명시적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고정관념화가 명시적 뿐만 아니라 암묵적 수준에서도 일어나는지 살펴봄으로써, 평가우려에 의한 참여자들

의 통제된 반응이나 편향된 응답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자기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동남아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연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주민 센터 등 현장에서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한 IAT의 실용적 대안인 페이퍼-펜슬 형식의 IAT를 통해 그들의 암묵적 자기고정관념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실제 페이퍼-펜슬 형식의 IAT를 사용한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에 사용한 컴퓨터 형식의 암묵적 연합검사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owery, Hardin & Sinclair, 2001; Sinclair, Lowery, Hardin & Colangelo, 2005).

이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사회정체성 맥락에서 정체성의 특출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이 동남아시아인들의 명시적·암묵적 자기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본 실험에 필요한 몇 가지 예비연구를 먼저 진행하였다. 예비연구 1-3은 동남아시아인들의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 조사와 페이퍼-펜슬 형식 IAT에 사용될 단어선정을 위해 실시되었다. 우선, 예비연구 1에서는 한국인과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을 알아보고자 한국인과 동남아시아인의 특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예비연구 2에서는 동남아시아인들의 자기고정관념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을 실제로 동남아시아인들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예비연구 3에서는 본 실험에서 암묵적 자기 유능성 평가 측정을 위한 페이퍼-펜슬 형식 IAT에서 사용될 유능성-무능성 속성 단어들을 선정하고자 유능함과 무능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친숙성, 능력차원, 긍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예비연구 1

예비연구 1에서는 한국인과 동남아시아인의 유능성과 따뜻함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김혜숙 등, 2003)와 일치하게, 한국인들이 ‘동남아시아인은 한국인보다 덜 유능하지만 더 따뜻하다’라는 고정관념적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방법 및 절차

참여자

00대학교 학부생 총 53명(남 27명, 여 23명, 성별 미가입 3명)이 참여하였다.

절차

연구자는 대인지각 및 인상형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라고 소개한 후 평가대상(한국인 또는 동남아인)이 제시된 설문지를 참여자들에게 무선으로 나누어 주었다. 또한 설문지에 제시된 특성들을 주의깊게 읽고, 한국인 또는 동남아인이 각 특성에 얼마나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때 각 특성 단어들은 참여자들이 보다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임의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설문지에 제시한 각 특성 단어들은 선행연구(김혜숙 외, 2003)의 유능성과 따뜻함을 묻는 문항에서 사용한 특성단어와 국어 형용사 연구(김정남, 2005)를 참고하여 각 특성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들을 선정한 것으로, 유능성/무능성(예: 유능하다, 지적이다, 총명하다 등/ 어리석다, 우둔하다, 게으르다 등)을 나타내는 각각 5개의 단어와 따뜻함/차가움(예: 따뜻하다, 정이 많다, 친절하다 등/ 차갑다, 냉정하다, 인색하다 등)을 나타내는 각각 5개의 단어들을 제시하였다. 평가척도는 모두 7점 척도(-3=전혀 그렇지 않다, 3=매우 그렇다) 상에서 이루어 졌다.

한국인과 동남아시아인의 유능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3~3점 척도를 1~7점 척도로 변환하였다. 또한 무능성을 나타내는 5개의 특성 문항을 역산한 후, 유능성을 나타내는 5개의 특성 문항과 함께 총 10개의 유능성 차원에 대한 문항 간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게으르다’ 문항을 제외한 9개의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alpha = .90$ 이었다. 이 9개의 문항을 합산한 평균치를 가지고 하나의 유능성 항목을 만들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인과 동남아시아인의 따뜻함에 대한 한국

표 1. 한국인/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과 따뜻함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 평균(표준편차), (예비연구 1)

	평가 대상	
	한국인(SD)	동남아이주민(SD)
유능성	5.44(.63)	3.94(.77)
N	26	27
따뜻함	4.21(.73)	4.70(.70)
N	26	27

주.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인들의 고정관념 또한, 내적 신뢰도가 낮은 ‘정이 많다’ 문항을 제외하고 $\alpha = .75$ 의 신뢰도를 보인 9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이 평균치를 가지고 하나의 따뜻함 항목을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한국인과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과 따뜻함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을 알아보기 위해 평가대상(2: 한국인 vs 동남아이주민)에 따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표 1과 같이 한국사람들은 동남아이주민($M = 3.94$)보다 한국인($M = 5.44$)이 더 유능하다고 인식하였다($t(51) = -7.69, p < .001$), 반면, 따뜻함 차원에 대해서는 한국인($M = 4.21$)보다 동남아이주민($M = 4.70$)이 더 따뜻하다고 인식하였다($t(51) = 2.54, p < .05$). 이러한 예비연구 1의 결과는 ‘동남아이주민은 한국인보다 덜 유능하지만 따뜻하다’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예상결과를 지지하였다.

예비연구 2

예비연구 1을 통해 한국인과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과 따뜻함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을 각각 알아보았다. 예비연구 2에서는 예비연구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동남아이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즉, ‘동남아이주민은 한국인보다 덜 유능하지만 더 따뜻하다’라는 인식)을 동남아이주민들 또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동남아이주민들의 자기고정관념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 동남아이주민들이 동남아이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사회적인 기대

나 고정관념을 인식해야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예비연구 2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및 절차

참여자

경기도 소재의 이주민 관련 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동남아이주민 총 30명(남 7명, 여 23명)이 참여하였다. 모두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민 11명과 베트남 출신의 이주민이 19명으로 구성되었다.

절차

연구자는 강의실에 들어가 참여자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다. 이 때 설문지는 번역전문기관을 통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로 각각 번역하여 제시하였다(본 설문지는 원어인 전문가의 감수와 역번역 등 엄격한 번역작업을 통해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조사의 목적이 동남아이주민들의 대인지각 및 인상형성 인식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참여자들에게 지시문을 주의깊게 읽고, 주어진 문항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성별과 나이, 그리고 출신국가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조사가 모두 끝난 것을 확인한 후, 참여자들에게 참여해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였다.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을 평가하는 문항은 총 3문항으로 ‘일반적으로, 한국사

람들은 동남아주민들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사람들은 동남아주민들이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사람들은 동남아주민들이 지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역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Cronbach $\alpha = .58$). 동남아주민의 따뜻함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을 평가하는 문항 역시 총 3 문항으로 '일반적으로, 한국사람들은 동남아주민들이 정이 많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사람들은 동남아주민들이 따뜻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역문항)', '일반적으로 한국사람들은 동남아주민들이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역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Cronbach $\alpha = .58$). 평가척도는 모두 6점 척도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

결과 및 논의

동남아주민이 지각한, 동남아주민의 특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을 알아보기 위해 고정관념 차원(2: 유능성 차원 vs 따뜻함 차원)에 따른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남아주민의 특성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은 두 고정관념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동남아주민들은 한국사람들이 동남아주민의 따뜻함($M = 4.37$)보다 유능성($M = 3.31$)이 더 낮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였다($t(58) = -5.56, p < .001$). 척도의 중간 값(Median)이 3.50점임을 고려했을 때 동남아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 평균치를 중간 값보다도 낮게 평가함으로써 한국인들이 동남아주민에 대해 무능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반면, 따뜻함 특성에 대해서는 중간 값보다 높게 평가함으로써 한국인들이 동남아주민을 따뜻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예비연구 1에서 동남아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 평가가 중간 값보다 약간 낮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동남아주민들이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유능성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상당히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예비연구 2를 통해 동남아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실제 고정관념과 일치하게, 동남아주민

들 역시 이러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연구 3

예비연구 3은 본 실험에서 암묵적 자기 유능성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페이퍼-펜슬 형식 암묵적 연합검사(paper & pencil format IAT)에 필요한 유능성-무능성 속성 단어들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유능성과 무능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친숙성, 능력차원, 긍정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때 유능성 속성 단어들과 무능성 속성 단어들은 능력차원과 긍정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만 친숙성은 차이가 없는 단어들로 선정하였다. 유능성 속성 단어와 무능성 속성 단어 간 친숙성의 차이는 단어를 범주화하는 반응시간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암묵적 자기고정관념화 결과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법 및 절차

참여자

경기도 소재의 이주민 관련 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동남아주민 18명(남 17명, 여 1명)이 참여하였다.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민이 11명, 베트남 출신 이주민이 7명이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명을 제외하여 총 17명으로 구성되었다.

절차

연구자는 강의실에 모인 참여자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준 뒤, 조사의 목적에 대해 사람들의 특성 및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들에 대한 인식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였다. 이 때 설문지는 한국어가 능통한 인도네시아 원어민과 번역전문기관을 통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로 각각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유능성을 나타내는 단어 40개(예: 유능한, 논리적인, 인정받는 등)와 무능성을 나타내는

단어 40개(예: 우둔한, 재능이 없는, 경험이 부족한 등)를 제시한 뒤, 각 단어에 대해 친숙성, 능력차원 및 긍정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앞에서 진행한 예비연구들에 비해 예비연구 3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시단어와 평가문항이 많은 관계로, 보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베트남어 또는 인도네시아어에 능통한 각 참여기관의 관계자의 도움을 얻어 조사내용 및 평가방법에 대해 원어로 재차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문항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단어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친숙한) 단어입니까?’, ‘주어진 단어는 어느 정도의 능력차원(무능성/유능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어진 단어는 어느 정도의 긍정성(부정적임/긍정적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각 단어마다 3문항에 대해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1=전혀 사용하지 않음, 7=매우 많이 사용함; 1=매우 무능함, 7=매우 유능함; 1=매우 부정적임, 7=매우 긍정적임). 평가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성별과 나이, 그리고 출신국가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조사가 모두 끝난 것을 확인한 후, 참여자들과 연구진행 협조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였다.

결 과

암묵적 자기 유능성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페이퍼-펜슬 형식 IAT에 필요한 유능성-무능성 속성 단어들을 선정하기 위해 유능성을 나타내는 단어 40개와 무능성을 나타내는 단어 40개 중, 능력차원과 긍정성에서는 평균치에 차이가 나타나지만 친숙성은 차이가 없는 유능성을 나타내는 단어 10개와 무능성을 나

타내는 단어 10개를 선정하였다. 부록 1에서 선정한 각 10개씩의 유능성-무능성 속성 단어들의 친숙성, 능력차원, 긍정성의 평균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 선정된 유능성-무능성 속성 단어들에 대한 세 가지 평가차원(친숙성/능력차원/긍정성)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표 2와 같이 선정한 유능성-무능성 속성 단어 각 10개의 친숙성, 능력차원, 긍정성 평균치를 구하였다. 이 평균치를 가지고 단어 속성(2: 유능성 속성단어 vs 무능성 속성단어) 간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능력차원에 있어서 유능성 속성 단어들($M = 5.23$)이 무능성 속성 단어들($M = 2.89$)보다 더 유능함을 나타낸다고 평가하였다($t(18) = 13.52, p < .001$). 긍정성에 있어서도 유능성 속성 단어들($M = 5.25$)이 무능성 속성 단어들($M=2.49$)보다 더 높게 평가됨으로써, 긍정적인 단어로 나타났다($t(18) = 26.3, p < .001$). 그러나 친숙성에 있어서는 유능성 속성 단어들($M = 4.76$)과 무능성 속성 단어들($M = 4.72$) 간 차이는 없었다($t(18) = .24, p > .10$). 따라서 예비연구 3을 통해 선정한 유능성-무능성 속성 단어들이 본 실험에서 암묵적 자기 유능성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페이퍼-펜슬 형식 IAT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예비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먼저, 동남아주민에 대해 한국인들은 ‘동남아주민이 한국인보다 덜 유능하지만 더 따뜻하다’라는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었으며(예비연구 1), 동남아주민들 역시 이러한 동남아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을 실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비연구 2). 이와 더불어 본 실험에서 시행할 페이퍼-펜슬 형식의 암묵적 연합검사에 적합한 유능성-무능성 속성 단어들을 예비연구 3을 통해 선정하였다.

표 2. 선정한 유능성-무능성 속성 단어 각 10개의 친숙성, 능력차원, 긍정성 평균(표준편차)

	친숙도 (SD)	능력차원 (SD)	긍정성 (SD)
유능성 속성 단어 10개	4.76(.42)	5.23(.43)	5.25(.41)
무능성 속성 단어 10개	4.72(.30)	2.89(.34)	2.49(.30)

주. 7점 척도(친숙성: 1=전혀 사용하지 않음, 7=매우 많이 사용함; 능력차원: 1=매우 무능함, 7=매우 유능함; 긍정성: 1=매우 부정적임, 7=매우 긍정적임).

본 실험

위 예비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는 다중사회정체성 맥락에서 특출해진 정체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이 동남아이주민들의 자기고정관념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선행연구(Sinclair 등, 2006)에서 다중사회정체성 맥락에서 특출해지는 사회정체성에 따라 자신의 특성을 특출해진 사회 집단의 특성에 의거하여 지각함으로써 자기개념이 달라질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이주민들 역시 출신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동남아인’이라는 정체성과 더불어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다중사회정체성 맥락에서,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지는 경우 ‘동남아인들은 무능하다’라는, 한국인들이 동남아인에 대해 기대하는 특성을 자신의 특성으로 지각하여 자기의 유능성을 낮게 평가할 것이다. 반면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지는 경우 자기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인식이 상대적으로 덜 인식됨으로써 자기 유능성을 낮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자기개념은 특출해진 정체성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의하는 데 기준이 되는 비교집단(집단 내 비교 vs 집단 간 비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Guimond 등, 2006; Heine 등, 2002). 이에 따라 평가자 집단 유형(동족의 평가자 vs 한국인 평가자)이 동남아이주민들의 자기고정관념화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였다. 즉, 평가자가 한국인인 집단 간 비교상황의 경우 동남아이주민은 자신이 동남아인이라는 인종에 기반한 집단범주가 더욱 특출해지고 따라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일치하게 자기 유능성을 낮게 평가할 것이다. 반면 평가자가 동족인 경우(즉, 집단 내 비교상황)에는 상대적으로 개인정체성이 더욱 특출해짐으로써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자기 평가에 덜 반영하여 자기 유능성을 낮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특출해진 정체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자기고정관념화를 명시적 자기고정관념화뿐만 아니라 암묵적 자기고정관념화도 함께 측정하여 암묵적 수준에서도 동일한 패턴의 결과

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출해진 정체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이 이주민들의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내집단에 대한 지각된 고정관념의 특출성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해 볼 것이다. 즉, 동남아 정체성이 특출해진 이주민이 동족이 평가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인이 평가하는 상황에서 자기 유능성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것은 ‘동남아인은 무능하다’라는 동남아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을 더욱 자기개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유능성을 낮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이주민의 경우에는 평가자가 한국인일 때에도 더 이상 동남아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을 자기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유능성을 낮게 평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특출해진 정체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동남아이주민들의 자기고정관념화가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 인식의 특출성에 의해 나타나는지를 검증해봄으로써 동남아이주민들의 자기고정관념화에 대한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실험의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가설 1. 참여자의 정체성 특출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할 것이다.

즉, 통제집단 참여자는 동남아인이 평가한다고 생각할 때보다 한국인이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유능성을 더 낮게 평가할 것이다.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참여자는 또한 동족의 동남아인이 평가한다고 생각할 때보다 한국인이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유능성을 더 낮게 평가할 것이다. 반면,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참여자는 동남아인이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한국인이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유능성 평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가설 2. 특출해진 정체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자기 유능성 평가는 암묵적 자기 유능성 평가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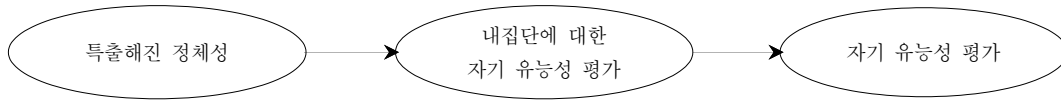


그림 1. 특출해진 정체성에 따른 자기 유능성 평가에서 내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인식의 매개효과(한국인 평가자 조건)

가설 3. 특출해진 정체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에 의한 자기고정관념화는 동남아이주민(내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고정관념 인식의 특출성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그림 1). 따라서 평가자가 한국인인 경우(즉, 집단정체성이 부각된 경우), 동남아정체성이 특출해진 참여자 혹은 통제집단 참여자는 한국인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보다 자신의 유능성을 낮게 평가할 것이다. 반면, 평가자가 동족인 경우에는 정체성의 특출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방법 및 절차

참여자 및 설계

경기도 소재 이주민 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등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거나 이주민 상담센터를 찾은 동남아시아 이주민들 총 116명(남 64명, 여 52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외국인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 등 성인남녀(평균나이 남 30.3세, 여 29.6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출신국가는 베트남 출신 이주민 47명,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민 69명이었다. 이 중에서 평가자 집단 유형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참여자 및 불성실한 응답자 4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는 모두 112명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설계는 3(정체성의 특출성: 한국인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vs 동남아인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vs 통제)x 2(평가자 유형: 한국인 평가자 vs 동족의 평가자)이었다.

절차

참여자들이 실험실에 들어오면 연구자는 참여자들을 실험실에 준비된 개인 의자에 6명에서 12명이 집단을 이루어 앉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에 대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역량 평가에 적합한 심리

적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이라고 소개 한 다음, 실험참여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실험에 대한 사전설명이 끝난 후 역량평가와 관련한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도록 하는 지시문을 무선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 지시문은 본 실험 전에 실시된 예비실험(p. 134에 기술)을 통해 정체성 특출성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지시문이었다. 즉, 참여자들의 정체성을 특출하게 하기 위해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지는 조건에서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도록 하였고(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럴 때 나도 한국인이다 됐다'라고 느꼈던 경험/ 한국음식, 명소,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유산, 유명인사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한국에서의 생활이 본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었는지/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또는 앞으로의 한국 생활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기 등),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지는 조건에서는 고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도록 하였다(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래도 역시 나는 출신국가(즉, 베트남 또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야'라고 느꼈던 경험/ 식습관, 옷차림, 고유 명절, 민족 축제 등 고국의 고유한 생활방식 또는 문화방식/ 한국에 있으면서 고국에서의 생활이 그리워졌던 경험/동남아시아(베트남 또는 인도네시아)인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또는 앞으로의 고국생활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기 등). 그리고 통제조건에서는 정체성과 관련없는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및 여가 활동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였다(예: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식습관이나 운동/ 주말과 같은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기억에 남는 영화 등). 이 때, 지시문과 앞으로 제시할 설문지는 모두 번역전문기관을 통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로 각각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원활한 실험진행을 위해 베트남어 또는 인도네시아어에 능통한 각 참여기관의 관계자

의 협조를 받아 원어로 자세히 설명해줌으로써 실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이 지시문에 대한 서술을 마쳤는지 확인한 후, 연구자는 면접을 보고 있는 남녀 사진이 담겨있는 취업 면접장면에 대한 시나리오를 무선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주어진 시나리오의 상황을 가능한 한 생생하고 상세하게 상상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이 때 평가자가 한국인인 조건에서는 면접 장면의 시나리오에서 심사자가 모두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술하였고, 평가자가 동족인 조건에서는 면접 심사자가 모두 참여자와 같은 민족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술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시나리오를 읽고 난 후, 페이퍼-펜슬 형식의 암묵적 자기 유능성 평가(Lemm, Lane, Sattler, Khan, & Nosek, 2008)를 시행하였다(부록 3-1참고). 이 때 연구자는 암묵적 자기 유능성 평가를 측정하는 IAT 과제가 별개의 다른 실험인 듯이 꾸미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단어 인식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간단한 실험'이라고 소개하고 새로운 실험의 목적과 과제 수행방법이 적힌 설명문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의 깊게 읽도록 하였다. 암묵적 자기 유능성 평가 과제는 총 7단계에 걸쳐 시행되었다(Greenwald, Nosek, & Banaji, 2003)(부록 3-2참고). 암묵적 자기 유능성 평가를 마친 참여자들은 명시적 자기 유능성을 평가하는 문항을 포함하여 설문지에 제시된 나머지 해당 문항들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에게 한국인과 동남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묻는 문항들과 평가자 집단 유형(한국인 평가자 또는 동족의 평가자)을 묻는 문항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였다. 이 후, 연구자는 실험이 모두 끝난 것을 확인한 뒤 참여자들에게 실험에 참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말과 함께 실험 참여 사례품을 증정하였다.

예비실험

예비실험은 본 실험에서 사용할 정체성 특출성의 조작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본 실험 실시 전에 실시하였다. 즉, 정체성 특출성 조작에 따라 동남아이주민들이 다중사회정체성 맥락에서 실제 민족 정체성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이 예비실험에는 경기도 소재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한국어교실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수강 중인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과 인도네시아 근로자 총 41명(남 7명, 여 34명)이 참여하였다. 평균나이는 남 26.4세, 여 28.9세였으며, 베트남 출신 이주민 30명,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민 11명이었다. 실험절차는 본 실험에서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을 위해 진행한 절차와 동일하였다. 각 조건의 지시문에 대한 서술이 끝나면, 지시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한국인과 동남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정체성 평가 문항은 Phinny(1992)의 다중집단 민족정체성 측정(MEIM: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문항 중 3문항을 각각 한국인 정체성과 동남아인 정체성 측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보다 자세한 기술은 p. 135 참고).

특출성 조작(피험자 간 변인/ 3: 한국인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vs 동남아인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vs 통제) x 민족 정체성(피험자 내 변인/ 2: 한국인 정체성 vs 동남아인 정체성)의 혼합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민족 정체성의 주효과 경향성이 있었는데($F(1, 38) = .168, p < .10$), 한국인 정체성($M = 4.49$)보다 동남아인 정체성($M = 4.76$)이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에 따른 민족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 38) = 7.74, p < .01$).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에 따른 민족 정체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통제조건에서는 동남아인 정체성($M = 4.95$)이 한국인 정체성($M = 4.36$)보다 높게 나타났다($F(1, 38) = 4.68, p < .05$). 동남아인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조건에서도 또한 통제집단과 같은 패턴으로 동남아인 정체성($M = 4.95$)이 한국인 정체성($M = 4.1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F(1, 38) = 8.95, p < .01$),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통제집단보다 두 민족정체성 간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조건에서는 한국인 정체성($M = 4.95$)이 동남아인 정체성($M = 4.38$)보다 높게 나타났다($F(1, 38) = 4.73, p < .05$).

이와 같이 예비실험의 결과, 예상대로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상황에서는 동남아인 정체성보다 한국인 정체성이 더욱 높아졌고,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

해진 상황에서는 한국인 정체성보다 동남아인 정체성이 더욱 높아졌다. 예비실험의 이러한 결과는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었으므로, 이러한 조작을 본 실험에서 사용하였다.

종속측정

조작점검

실험 참여자들이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에 따라 한국인 정체성 또는 동남아인 정체성이 고양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Phinny(1992)의 다중집단 민족정체성 측정(MEIM: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문항 중 3문항을 한국인 정체성과 동남아인 정체성 측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고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의 문화와 민족성에 대해 얼마나 좋게 생각하는지, 한국사회에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한국의 음식과 음악, 관습 등 한국의 문화방식을 따르는지 등 한국인 정체성을 묻는 총 3문항을 사용하였다(Cronbach $\alpha = .64$). 또한 동남아인으로서의 정체성 고양 정도 역시 한국인 정체성 측정 문항과 동일하게, 고국의 문화와 민족성에 대해 얼마나 좋게 생각하는지, 고국에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고국의 음식과 음악, 관습 등 고국의 문화방식을 따르는지 등 동남아인 정체성을 묻는 총 3문항을 사용하였다(Cronbach $\alpha = .70$). 평가척도는 모두 6점 척도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 각 정체성 점수는 각 3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의 평균으로 삼았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면접상황에서 평가자 유형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자가 한국인인지 또는 같은 민족 출신의 동남아인인지를 체크하도록 하였다(1=한국인 평가자, 2=같은 민족 출신의 평가자).

명시적 자기 유능성 평가

참여자에게 앞의 면접상황에서의 자신의 면접점수를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지 0점에서 100점까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의 유능성, 지적 능력, 자신감 등의 유능성을 나타내는 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Cronbach $\alpha = .69$). 유능성을 나타내는 특성들과 함께

자신의 전반적인 성격, 친절함 등의 따뜻함을 나타내는 특성들을 평가하도록 하였다(Cronbach $\alpha = .66$). 또한 시나리오가 취업 면접 장면이었던 것을 고려하여,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개인적 능력으로서의 자신의 업무 수행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 부가문항(filler item)도 함께 포함하였다. 평가척도는 모두 6점 척도였다(1=매우 낮음, 6=매우 높음).

암묵적 자기 유능성 평가

암묵적 자기 유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한 페이퍼-펜슬 형식의 암묵적 연합검사에서 사용한 표적 범주어(타인을 나타내는 단어; 너, 네가, 너희, 너희들 등 10개, 자기를 나타내는 단어; 나, 내가, 나의, 우리들 등 10개)는 조혜자, 방희정(2006)의 연구와 동일하며, 속성 범주어(유능성 속성 단어; 유능한, 논리적인, 인정받는 등 10개, 무능성 속성 단어; 우둔한, 재능이 없는, 경험이 부족한 등 10개)는 앞에서 언급한 예비연구 3을 통해 선정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페이퍼-펜슬 형식의 암묵적 연합검사를 통해 얻은 자기-유능성 일치 연합에서 범주화 한 개수(A)와 자기-유능성 비일치 연합에서 범주화 한 개수(B)를 가지고, Lane, Mitchell과 Banaji(2005), Lemm 등(2008)이 제안하는 $(X/Y) * (X-Y)$ 의 제곱근(X: A와 B 중 최대값, Y: A와 B 중 최소값) 알고리즘 분석방법과 Lowery 등(2001)과 Sinclair 등(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두 연합 간 범주화 개수 차이 분석방법 등으로 IAT 점수를 산출하였다. 분석방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원리는 상응 연합일 경우 비상응 연합보다 인지적 접근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상응 연합에서 비상응 연합에서보다 더 많이 옳은 범주화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IAT 점수가 높을수록, 동남아주민들이 자기 유능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아주민의 유능성/따뜻함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동족들의 고정관념

참여자들이 동남아주민의 유능성/따뜻함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아울러 같은 차원(즉, 동남아주민의 유능성/따뜻함)에 대한 동족들의 고정관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기 위해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과 따뜻함 측면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동족들의 고정관념을 묻는 문항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유능성 차원에서는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 지적능력 및 자신감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동족들의 고정관념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총 3문항이었으며(Cronbach $\alpha = .51$), 따뜻함 차원에서는 동남아이주민의 따뜻한 성격, 친절함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동족들의 고정관념을 평가하는 2문항으로 이뤄져 있다(Cronbach $\alpha = .46$). 이와 더불어, 명시적 자기 유능성 평가와 동일하게 취업장면과 관련한 업무 수행능력 및 대인관계 능력에 있어서 지각된 한국인/동족들의 고정관념도 함께 평가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총 7문항으로, 모두 6점 척도로 평가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

결 과

조작점검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에 따른 각 한국인과 동남아인 정체성의 고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3: 한국인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vs 동남아인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vs 통제) x 민족 정체성(2: 한국인 정체성 vs 동남아인 정체성)의 혼합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민족 정체성은 피험자 내 변인이다. 그 결과, 한국인 정체성($M = 4.53$)보다 동남아인 정체성($M = 4.83$)을 더 높게 평가함으로써 민족 정체성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F(1, 109) = 11.31, p = .001$). 그러나 이러한 민족정체성의 주효과는 예상대로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과 민족 정체성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에 의해 제한되었다($F(2, 109) = 22.65, p < .001$).

각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조건에서 민족 정체성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통제조건에서는 동남아인 정체성($M = 4.95$)이 한국인 정체성($M = 4.37$)보다 높게 나타났다($F(1, 109) = 14.15, p < .001$). 동남아인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조건 역시 통제집단 조건에서와 동일한 패턴으로 동남아인 정체성($M = 5.14$)이 한국인 정체성($M = 4.28$)보다 높게 나타났는데($F(1, 109) = 29.65, p < .001$), 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민족 정체성간 점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동남아인 정체성이 더 특출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인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조건에서는 앞의 두 조건과는 반대로 한국인 정체성($M = 4.95$)이 동남아인 정체성($M = 4.41$)보다 높게 나타났다($F(1, 109) = 12.09, p = .001$). 또한 각 민족 정체성에서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조건 간 차이를 알아보고자 단순주효과를 검토한 결과, 한국인 정체성에서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조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 109) = 9.90, p < .001$). 즉 동남아인 정체성을 특출하게 했을 때 혹은 통제 조건에서보다 한국인 정체성을 특출하게 했을 때 한국인 정체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각각 $p < .001; p = .001$),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조건과 통제 조건 간 한국인 정체성 평가 차이는 없었다($p > .10$). 동남아인 정체성에서도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조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 109) = 7.563, p = .001$). 동남아인 정체성을 특출하게 한 조건 혹은 통제 조건은 한국인 정체성을 특출하게 한 조건에서보다 동남아인 정체성이 각각 유의미하게 높아졌고(각각 $p < .001; p < .01$), 동남아인 정체성을 특출하게 하는

표 3.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에 따른 민족 정체성 평균(표준편차), (본 실험)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한국인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SD)	동남아인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SD)	통제(SD)
한국인 정체성	4.95(.13)	4.28(.13)	4.37(.13)
N	38	36	38
동남아인 정체성	4.41(.14)	5.14(.14)	4.95(.14)
N	38	36	38

주.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

조건과 통제 조건 간 동남아인 정체성 평가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10$). 따라서 예비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실험에서도 다중사회정체성 맥락에서 동남아인 정체성을 특출하게 하는 경우 한국인 정체성보다 동남아인 정체성이 더 높아지는 반면, 한국인 정체성을 특출하게 하는 경우 동남아인 정체성보다 한국인 정체성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얻어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효과가 성공적이었다.

평가자 집단 유형에 대한 조작은 평가자 집단 유형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된 4명 외에 모두 정확히 평가자 집단 유형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시적 자기 유능성 평가 1 - 면접 점수

정체성의 특출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자기 유능성 평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했던 면접상황에서의 자신의 면접 기대(예상)점수에 대해 정체성의 특출성(3: 한국인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vs 동남아인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vs 통제)과 평가자 집단 유형(2: 한국인 평가자 vs 동족의 평가자)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의 주효과($F(2, 103) = 11.79, p < .001$)와 평가자 집단 유형의 주효과($F(1, 103) = 29.35, p < .001$)가 유의미하였다.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에 대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M = 74.37$)에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M = 60.14$) 혹은 통제집단($M = 60.22$)의 경우보다 자기 면접점수를 더 높게 평가했다(각각 $p < .001; p < .001$).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와 통제 집단 간 자기 면접점수에는 차이가 없었다($p > .10$). 평가자 집단에 따른 자기 면접점수를 살펴보면, 평가자 집단이 한국인일 때($M = 57.41$)보다 같은 동족일 때($M = 72.41$) 자기 면접점수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예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주효과는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과 평가자 집단 유형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에 의해 제한되었다($F(2, 103) = 6.02, p < .01$). 각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조건에서 평가자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

림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통제집단의 경우 평가자가 한국인일 때($M = 52.94$)보다 동족의 평가자일 때($M = 67.50$) 자기 면접점수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F(1, 103) = 9.14, p < .01$).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 또한 통제집단과 같은 패턴으로 평가자가 한국인일 때($M = 46.67$)보다 평가자가 동족일 때($M = 73.61$) 자신의 면접점수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F(1, 103) = 31.31, p < .001$). 반면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에는 평가자가 한국인일 경우($M = 72.63$)와 동족일 경우($M = 76.11$)에 따른 면접점수의 차이가 없었다($F(1, 103) = .54, p > .10$). 이번에는 각 평가자 집단 조건에서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려고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 한 결과, 평가자가 한국인일 경우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 103) = 16.38, p < .001$). 즉, 평가자 집단이 한국인일 때,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졌을 경우($M = 72.63$)에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조건($M = 46.67$) 혹은 통제 조건($M = 52.94$)에서보다 자신의 면접점수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각각 $p = .001; p < .05$).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조건과 통제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p > .10$). 반면, 평가자가 동족일 때에는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에 따른 자기 면접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F(2, 103) = 1.69, p > .10$).

요약하면, 통제집단 참여자와 특히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참여자의 경우, 동족의 동남아인이 평가한다고 생각할 때보다 한국인이 평가한다고 생각할 때에 자신의 유능성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참여자는 평가자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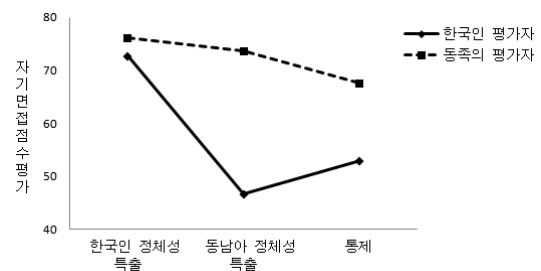


그림 2. 정체성의 특출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자기 면접점수 평가

단에 따른 자신의 유능성 평가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시적 자기 유능성 평가 2 - 유능성 평가

정체성의 특출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자기 유능성 평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했던 면접상황에서의 자신의 유능성 평가를 가지고 정체성의 특출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체성의 특출성 조건의 주효과($F(2, 106) = 3.11, p < .05$)와 평가자 집단 유형의 주효과($F(1, 106) = 9.38, p < .01$)가 유의미하였다. 이에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에 대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M = 4.32$)에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M = 3.75$)보다 자기 유능성 점수를 더 높게 평가했다($p = .05$). 그 밖에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와 통제집단 간 차이 혹은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와 통제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ps > .10$). 평가자 집단에 따른 자기 유능성 평가를 살펴보면, 평가자 집단이 한국인일 때($M = 3.74$)보다 같은 동족일 때($M = 4.31$) 자기 유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효과들은 예상대로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과 평가자 집단 유형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에 의해 제한되었다($F(2, 106) = 3.64, p < .05$). 각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조건에서 평가자 집단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3에서와 같이,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 평가

자가 한국인일 때($M = 3.11$)보다 평가자가 동족일 때($M = 4.39$) 자신의 면접점수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F(1, 106) = 15.36, p < .001$). 반면, 한국인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 조건과 통제집단에서는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자기 유능성 평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 106) = .44, p > .10; F(1, 106) = .44, p > .10$). 이번에는 각 평가자 집단 조건에서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가자가 한국인인 경우,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 106) = 6.15, p < .01$). 평가자가 한국인일 때,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조건($M = 3.11$)에서보다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조건($M = 4.21$)에서 자신의 유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고($p < .05$),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졌을 때와 통제집단($M = 3.90$) 간의 차이 혹은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졌을 때와 통제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s > .10$). 평가자가 동족일 때에는 정체성 조작에 따른 자기 유능성 평가에 차이가 없었다 ($F(2, 106) = .536, p > .10$).

이와 같이 정체성의 특출성과 평가자 집단에 따른 자기 유능성 평가의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보았던 자기 면접점수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참여자들이 평가자가 동족일 때보다 한국인 평가자일 때 자기 유능성을 낮게 평가하였으나 통제조건이나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조건에서는 평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써 가설 1을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적 자기 유능성 평가

암묵적 자기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시행한 페이퍼-펜슬 형식 IAT에서 IAT 점수는 자기-유능성 연합과 자기-무능성 연합의 범주화 개수 차이로 계산하였다. 이 때, IAT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유능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주화 과정에서 50% 이상 오류를 범한 IAT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한 후, 정체성의 특출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암묵적 자기 유능성 평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IAT 점수에 대해 정체성의 특출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이원변량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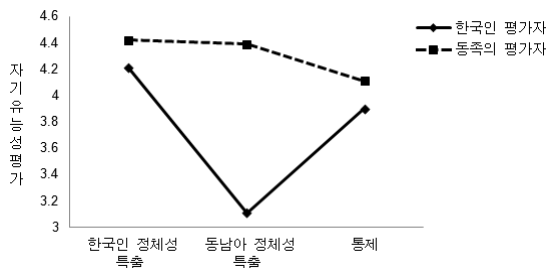


그림 3. 정체성의 특출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자기 유능성 평가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F(2, 95) = 4.16, p < .05$).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에 대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M = 19.97$) 혹은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M = 19.05$)에 통제조건($M = 11.85$)보다 암묵적인 자기 유능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각각 $p < .05; p < .10$).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조건과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 > .10$).

또한 예상했던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과 평가자 집단 유형 간 상호작용의 경향성이 있었다($F(2, 95) = 2.53, p < .10$). 각 정체성의 특출성 조건에서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조건에서만 평가자 집단에 따른 차이의 경향성이 나타났다($F(1, 95) = 3.01, p < .10$). 다시 말해,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 한국인 평가자 조건($M = 15.28$)에서보다 동족의 평가자 조건($M = 22.81$)에서 암묵적 자기 유능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는 반면,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조건과 통제조건에서는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F(1, 95) = 1.14, p > .10; F(1, 95) = .93, p > .10$). 다른 방향의 단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평가자 집단 유형에서 정체성의 특출성 조건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통제 집단과 다른 두 정체성이 특출해진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인 평가자일 경우 통제조건($M = 13.94$)보다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조건($M = 22.33$)에서 더 암묵적 자기 유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p < .10$). 그러나 통제조건과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조건($M = 15.28$)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p > .10$),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조건과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조건 간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p > .10$). 한편, 동족의 평가자일 경우에서도 정체성의 특출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F(2, 95) = 4.48, p < .05$). 통제조건($M = 9.77$)보다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조건($M = 22.81$)에서 더 암묵적 자기 유능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p < .01$),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조건($M = 17.61$) 역시 통제조건보다 더 암묵적 자기 유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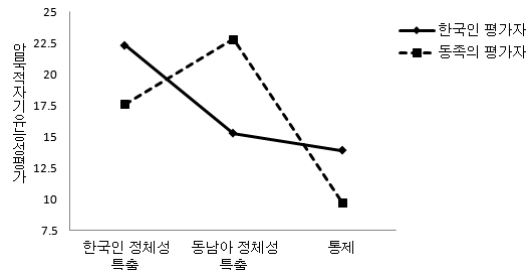


그림 4. 정체성의 특출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암묵적 자기 유능성 평가(IAT 점수)

다($p < .10$).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조건과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조건 간 차이는 없었다($p > .10$).

결과들을 살펴보면, 앞에서 보았던 명시적 자기 유능성 평가에서는 동족의 평가자일 때보다 한국인 평가자일 때 각 정체성의 특출성에 따른 자기 유능성에서 차이가 나타났지만 암묵적 자기 유능성 평가에서는 한국인 평가자보다도 동족의 평가자 조건에서 특출성에 따른 자기 유능성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묵적 자기 유능성 평가에서, 한국인 평가자일 때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참여자들이 통제집단보다 자기 유능성을 암묵적인 수준에서도 여전히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앞에서 살펴보았던 명시적 자기 유능성 평가에서의 결과와 일치하게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에 동족의 평가자보다 한국인 평가자 조건에서 자기 유능성을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함으로써 명시적 수준뿐만 아니라 암묵적 수준에서도 자기고정관념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2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정체성의 특출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자기 유능성 평가에서 동남아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동족들의 고정관념 특출성의 매개과정

정체성의 특출성과 평가자 집단에 따른 자기 유능성 평가가 내집단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주류집단(즉, 한국인)의 고정관념 특출성 정도(즉, 내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자신의 특성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특히, 평가자가 한국인일 때,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보다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에 자기 유능성을 더 낮게 평가함으로써 자기고정관념과 나타났는데, 이러한 자기고정관념화가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에 의해 매개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매개효과 검증(Baron & Kenny, 1986)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인 평가자 조건에서, 정체성의 특출성을 더미코딩(특출해진 동남아인 정체성 = 1, 특출해진 한국인 정체성 = 0)한 후 독립변인에 대입하였고 매개변인으로는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 항목을 대입하였다. 그리고 자기면접점수 평가, 자기 유능성 평가에 대한 정체성의 특출성의 효과를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이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첫 번째 단계로, 특출해진 정체성이 자기 유능성 평가(자기면접점수 평가/자기 유능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종속측정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각각 $\beta = -.636, p < .001$; $\beta = -.492, p < .01$).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 특출해진 정체성이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음으로써($\beta = .256, p > .10$) 매개과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설 3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적 자기 유능성 평가는 한국인 평가자일 때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집단과 통제집단 간 자기 유능성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었으므로 정체성의 특출성은 다음과 같이 '통제집단 = 1, 특출해진 한국인 정체성 = 0'으로 더미코딩 하였다. 그 다음, 앞의 단계와 일치하게 매개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암묵적 자기 유능성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출해진 정체성이 암묵적 자기 유능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경향성이 있었지만($\beta = -.322, p < .10$), 특출해진 정체성이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아 매개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다($\beta = -.130, p > .10$).

또한 이전 연구(Sinclair 등, 2005)에서와 같이, 자기 고정관념화 과정에서 내집단에 대한 주류사회의 고정관념보다 가까운 타인의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체성의 특출성과 평가자 집단에 따른 자기 유능성 평가가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

각된 동족들의 고정관념의 특출성 정도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앞서 기술한 방법과 동일하게, 매개분석은 한국인 평가자 조건에서 정체성의 특출성을 더미코딩한 후 독립변인에 대입하였고 매개변인으로는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동족들의 고정관념 항목을 대입하였다. 그리고 자기 면접점수 평가, 자기 유능성 평가, 그리고 암묵적 자기 유능성 평가(IAT 점수)에 대한 정체성의 특출성 효과를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동족들의 고정관념이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러나 매개분석 결과, 앞에서 기술한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 특출성의 매개효과와 동일한 패턴으로 매개분석의 두 번째 단계가 유의미하지 않아 동족들의 고정관념 특출성 역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beta = -.039, p > .10$).

자기 유능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체성의 특출성과 평가자 집단의 각 조건별로 자기 면접점수 평가와 자기 유능성 평가에 대해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동족들의 고정관념, 그리고 한국인/동남아인 정체성(정체성의 특출성 조작에 따른 민족정체성 평가점수) 등이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자기 면접기대(예상) 점수에 있어서, 평가자가 한국인이고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에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이 자기 면접점수 평가를 설명하는 유일한 요인으로 나타났다($\beta = .516, p < .10$). 이러한 결과는 평가자가 한국인일 때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참여자의 낮은 자기 면접점수 평가가 동남아이주민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인식할수록 자기 면접점수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기 유능성 평가에서는, 동일 조건(즉, 평가자가 한국인이고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조건)에서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동족들의 고정

표 4. 평가자가 한국인일 때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참여자들의 자기 면접점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F
자기 면접점수 평가	동남아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	.516 ⁺	.358	2.597
	동남아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동족들의 고정관념	-.262		
	동남아인 정체성	.391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관념이 자기 유능성 평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beta = -.781, p < .05$). 동남아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beta = .255, p > .10$)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자기 면접점수 평가에서의 결과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남으로써 동남아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자기 유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정적인 방향성을 띄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동남아주민의 특출해진 정체성에 의해 동남아주민들의 부정적 자기고정관념화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체성의 특출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자기 유능성 평가의 결과를 살펴보면, 예상한 바와 같이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 평가자가 동족일 때보다 평가자가 한국인일 때 자기 면접점수를 더 낮게 평가하는 반면,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자기 면접점수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자기 유능성 평가에서도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 동족의 평가자일 때보다 한국인 평가자일 때 자기 유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반면,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 평가자 집단 유형과 관계없이 자기 유능성을 높게 평가함으로써 자기 면접점수 평가에서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가설 1을 지지해 주는 결과들로, 평가자가 동족인 경우와 달리 한국인 평가자의 경우,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참여자들은 인종을 기반으로 한 평가자 집단과의 비교(즉, 집단 간 비교맥락)상황으로 인해 개인정체성이 아닌 집단정체성이 더 특출해져 부정적인 자기고정관념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지는 경우(즉, 집단 내 비교맥락)에서는 자기 유능성을 보다 높게 평가함으로써 부정적 자기고정관념화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이러한 정체성의 특출성 조작과 평가자 집단에 따른 자기고정관념화는 명시적 수준뿐만 아니라 암묵적 수준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선 자기 면접점수에서의 결과와 일치하게, 평가자가 한국인일 경우에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참여자는 통제집단보다 암묵적 자기 유능성을 높게 나타내는 경향성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기 유능성 평가에서의 결과와 일치하게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참여자의 경우 평가자가 동족일 때보다 평가자가 한국인일 때 자기 유능성을 암묵적 수준에서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고정관념화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도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가설 2를 일부 지지하였다. 이를 통해 동남아주민들은 다중사회정체성 맥락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자기 개념을 가지게 되어,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지는 경우 명시적 수준뿐만 아니라 암묵적 수준에서도 부정적 자기고정관념화가 완화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대로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지는 경우 암묵적으로도 부정적 고정관념을 자기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같은 암묵적 측정의 결과는 위에서 기술한, 자기 유능성 평가와 면접점수 평가의 명시적 측정이 단순한 요구 특성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아울러 정체성의 특출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자기 유능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본 결과, 평가자가 한국인이고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참여자들의 자기 면접점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동남아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한국

인들의 고정관념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유능성 평가에 있어서도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동남아 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이 면접점수 평가의 경우와 유사한 방향으로 영향(즉, 정적영향)을 미쳤다. 자기 면접점수 평가의 경우, 자기 유능성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평가요인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동남아 이주민들의 유능성 외에 다른 평가차원(예: 외모, 생활환경 등)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나 또는 단순히 한국인 평가자가 자신에게 부여할 점수를 예측함에 있어 동남아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편견에 근거하여 예측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동남아 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이 그들의 (부정적) 자기 고정관념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범주화 이론이 예측하는 대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남아 이주민들이 상황과 맥락(여기서는 평가자 국적과 특출해진 정체성)에 따라 자기 개념이 동남아 이주민 집단 전체에 대한 주류사회의 고정관념에 의존되어 변화된다(즉, 자기 고정관념화)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본 연구 결과는 명시적 면접점수 판단, 명시적 자기 유능성 평가 및 암묵적 자기 유능성 측정에 있어 반복적으로 한국인 평가-동남아 정체성 상황에서 다른 상황에서도 더욱 자기 평가가 부정적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적어도 이 상황에서 자신이 받을 면접점수를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자기 개념이 부정적으로 되는 데에는, 이주민 응답자가 자신의 집단에 대한 주류 집단의 고정관념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실제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남아 이주민들이 자신의 집단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인해 자기 개념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더 나아가 실제 그들의 수행에 대한 기대나 자신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고정관념 위협을 줄이는 대책안과 관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고정관념 위협(stereotype threat)이란,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과 관련된 부정적 고정관념을 자신이 확인시키는 것에 대한 불안, 고정관념의 활성화,

작동 기억 감소 등으로 실제 개인의 수행이 악화되는 것을 말한다(Steele, 1997; Steele, Spencer & Aronson, 2002). 본 연구에 적용하여 예를 들면, 자기 고정관념화가 나타난 참여자의 경우 실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수행영역에서 동남아 이주민은 유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더욱 자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에 따라 자신이 주류사회의 고정관념을 확인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하는 위협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어 그 결과 실제 수행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Rydell, McConnell과 Beilock(2009)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정관념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다중사회 정체성의 맥락에서 위협을 받는 영역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을 지닌 집단의 사회 정체성을 특출하게 만들 경우, 부정적 고정관념화를 지닌 정체성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긍정적 정체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정관념 위협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성의 수학능력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 노출된 여대생이 '대학생은 수학능력이 높다'라는 긍정적 고정관념을 지닌 대학생 사회 정체성에 더 동일시할 경우, 여성 정체성만이 활성화된 여대생보다 실제 수학 문제를 더 잘 수행함으로써 고정관념 위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결과에 다시 적용해보면, 동남아 이주민들 또한 그들의 다중사회 정체성 맥락에서 면접 장면이나 혹은 수행 평가와 같이 유능성을 확인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다면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보다 부정적 고정관념이 덜 활성화되고 긍정적 고정관념과 접근 용이해짐으로써 고정관념 위협을 줄여 실제 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에 있어, 여전히 만연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고정관념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거나 혹은 자신의 고유 정체성을 부인하고 주류사회 정체성만을 수용하는 수동적이고 취약한 대상이 아닌,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정체성 확립을 통해 긍정적 자기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변화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동남아 이주민들의 다중사회 정체성 맥락에서 그들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 자기 고정관념화가 한국인 정체성을 특출

하게 한 상황에서는 완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이주민 집단이 한국인 다수의 거주 상황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부정적 자기개념화와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개입(intervention)방안의 가능성을 지적해 준다. 이를 이주민들의 문화적응 측면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즉, 이주민들이 기존의 고유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켜 통합된 정체성을 지니는 것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이 여전히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그들의 심리적 갈등과 부정적 자기고정관념화를 줄이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을 높이는 데 효과적 방안임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erry(1997)는 이주민들의 문화 적응을 총 네 가지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주민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류사회의 문화 및 정체성을 수용하는 통합(integration)모형과 고유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 대신에 주류사회의 문화와 정체성을 수용하는 동화(assimilation)모형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이주민들의 고유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고 주류사회의 문화와 정체성을 수용하지 않는 분리(segregation), 고유 민족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주류사회의 정체성 및 문화 모두를 수용하지 못하는 주변화(marginalization) 모형이 있다. 이 때 동화는 소수집단의 분개나 거부를 일으킬 수 있으며(Gaertner & Dovidio, 2010; Gonzales & Brown, 2006), 분리와 주변화 문화적응 모형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적관계를 보이는 반면, 통합 모형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적관계를 보임으로써 통합모형이 이주민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된(integrated)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이 동화된 정체성이나 분리된 정체성을 발전시킨 이주민들에 비해 높은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Krishnan & Berry, 1992).

한편 동남아인 정체성만이 특출해진 상황에서는 부정적 자기고정관념화가 더욱 뚜렷해짐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 역시 고유 정체성 대신 주류집단인 한국의 정체성만을 수용하도록 하는 동화나 주류사회의 정체성과 문화를 수용하지 않고 고유 정체성과 문화만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리모형의 문화적응 형태보다, 고유 민족의 정체

성을 유지하면서 한국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통합 형태 혹은 이중 정체성(dual identity)을 보 유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체성을 적용하도록 하여 이주민들의 문화적응을 도울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사회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특출해진 정체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이 자기 유능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특출해진 정체성과 평가자 집단에 따른 자기 유능성 평가 차이가 동남아이주민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을 얼마나 자기개념으로 받아들이는지, 즉 고정관념의 특출성 정도에 의한 것임을 예상하였으나 매개분석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처럼 매개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 검토한 미세한 심리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수(현재 각 조건 당 20명 이내)가 부족하였을 수 있고,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가 베트남 출신과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이 섞여 있는 등 동질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의 이주민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평가 측정의 순서에 의해 왜곡된 결과일 수 있다. 즉, 이주민 집단의 유능성에 대한 한국인 혹은 동족의 고정관념 평가는 자기 유능성 평가 후에 이루어져서 이러한 자기 평가가 지각된 고정관념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 유능성 평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이주민 유능성에 대한 동족의 신념이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동남아 응답자들이 자신의 유능성을 평가할 때 한국사람들의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유능성을 낮게 지각하였지만, 그 후 동족의 신념을 평가할 때는 동족의 신념을 오히려 자신의 유능성 지각과 반대되는 것(즉, 보다 높은 유능성 평가)으로 평가함으로써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상쇄시키고자 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상의 문제점들을 수정하여 다시 한번 매개과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또 하나의 제한점은 한국인 평가자의 경우에는 인종정체성이 특출해질 것이고 반면 동족의 동남아인 평가자 상황에서는 보다 개인 정체성이 특출해져서,

전자의 경우에는 앞의 정체성 조작에서 특출해진 인종 정체성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후자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작 점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종 혹은 개인 정체성 특출성에 대한 조작 점검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경우, 평가자가 한국인일 때 자기 면접점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내 집단에 대한 주류집단의 고정관념을 더 자기개념으로 받아들이며 집단에 대한 기대 특성과 일치하게 자기 특성을 정의한다는 본연구의 해석과 다른 대안적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즉, 동남아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참여자들은 평가자가 한국인일 경우, 한국인들이 동남아이주민들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므로 자신도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인식하여 자기 면접점수를 낮게 받을 것으로 예측하였을 수 있다. 즉, 자기고정관념화 과정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전한 인지적 예측 과정이었다는 대안 해석이다. 반면 동족이 평가하는 상황에서는 내집단이 평가하므로 높은 면접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 있다. 한편 한국인 정체성이 특출해진 참여자들은 평가자가 한국인일지라도 자신 역시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보다 인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외집단 구성원이 아닌 같은 내 집단 구성원으로써 한국인들이 자신을 낮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여 자기 면접점수를 낮게 예측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적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면접점수 평가와는 달리, 자기 유능성 평가나 암묵적 유능성 평가 결과는 이러한 대안적 해석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즉, 한국인 평가(면접관)-동남아 정체성의 상황에서 자기 유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요구된 평가는 면접관이 자신에게 부여할 유능성 점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유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종속 측정의 결과는 위와 같은 대안적 해석이 적용되기 어렵고, 한국인들이 동남아이주민 집단의 유능성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적 평가를 자신의 특성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더 유력하다.

이와 같이, 정체성의 특출성과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자기고정관념화 과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평가자 집단 유형에서는 통제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평가자 집단을 제시하지 않는 조건을 추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 평가자 집단 유형에 따른 자기고정관념화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이주민들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해 봤을 때, 평가자 집단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해도 평가자를 한국인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해석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아무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즉, 사전에 자기 유능성을 평가하도록 한 후 조작이후의 자기 유능성 평가와 비교해 본다면 보다 명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이주민들 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기 유능성을 평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 면접 상황을 유능성 평가 장면으로서 선택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동남아출신의 학생이나 혹은 다문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업능력(예를 들어, 학교 성적이나 시험 성적)에 대한 유능성 평가 장면을 제시하여 본 연구결과에 대한 반복검증 및 연구 확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에서 더 나아가 다문화 자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함으로써 동남아이주민의 자기고정관념화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이해를 돕고, 실제 학업수행부진이나 정체성의 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목적인 바와 같이, 동남아이주민들의 다중사회정체성 맥락에서 이주민들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 자기고정관념화가 동남아정체성이 특출해진 상황에서는 더욱 뚜렷해지는 반면, 한국인 정체성을 특출하게 한 상황에서 완화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동남아이주민들의 문화적응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남아이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은 예비연구에서도 살펴봤듯이 '동남아인들은 무능하지만 따뜻하다'라는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의 자기고정관념화를 검증해봄으로써 긍정적 자기고정관념화의 향상을 통한 이주민들의 문화적응 측면도 생

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동남아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요즘, 동남아이주민에 대한 연구들 역시 다각적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성과적인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연구들의 대다수가 조사연구 혹은 질적 연구로, 동남아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가 동남아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실험연구인만큼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하여 동남아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들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는데 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고아라 (2005). 수도권 초등학교의 인종 편견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국민일보 (2010, 5, 19). 다문화가정 아이들 28% 차별 경험.
 김정남 (2005). 국어형용사의 연구. 역락.
 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최인철 (2003).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21-143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노경란, 방희정 (2008). 한국대학생과 국내체류 외국대학생 간에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75-92
 노경란, 방희정 (2009). 다문화시대 한국 초등학교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발달과 태도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49-79
 박주희, 정진경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395-432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 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7).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임성택 (2003).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한국학생들의 고정관념 분석. 교육학연구, 41(3), 275-301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한국일보 (2009, 11, 27). '외국인에 인종차별 발언' 첫 모욕죄 인정.
 행정안전부 (201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자료.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1230-1240.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 (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pp.232-253). Newbury Park, CA: Sage.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Cooley, C. H. (1902). *In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hocken Books.
 Fiske, S. T., Cuddy, A. J. C., & Glick, P. (2007). Universal dimensions of social perception: Warmth and compete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 11, 77-83.
 Fiske, S. T., Cuddy, A. J. C.,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78-902
- Gaertner, S. L., & Dovidio, J. F. (2010). A Common Ingroup Identity: A categorization-based approach for reducing intergroup bias. In T. Nelson (Ed.), *Handbook of prejudice*. (pp. 489-506). Philadelphia, PA: Taylor & Francis.
- Gonzalez, R., & Brown, R. (2006). Dual identities in intergroup contact: Group status and size moderate the generalization of positive attitude chang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 753-767.
- Greenwald, A. G., Banaji, M. R., Rudman, L. A., Franham, S. D., Nosek, B. A., & Mellott, D. S. (2002). A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 3-25.
- Greenwald, A. G., Farnham, S. D. (2000).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measure self-esteem and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1022-1038.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197-216.
- Guimond, S., Chatard, A., Martinot, D., Crisp, R. J., & Redersdorff, S. (2006). Social comparison, self-stereotyping, and gender differences in self-constr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221-242.
- Hamilton, D. L., Sherman, S. J., & Ruvolo, C. M. (1990). Stereotype based expectancies: Effects on information processing and social behaviour. *Journal of Social Issues*, 46, 35-60.
- Heine, S. J., Lehman, D. R., Peng, K., & Greenholtz, J. (2002). What's wrong with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subjective Likert scales? The reference-group effec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 327-345.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1-27.
- Kinch, J. W. (1963). A formalized theory of the self-concep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8, 481-486.
- Krishnan, A., & Berry, J. W. (1992). Acculturative stress and acculturation attitudes among Indi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Psychology and Developing Societies*, 4, 187-212.
- Lane, K. A., Mitchell, J. P., & Banaji, M. R. (2005). Me and my group: Cultural status can disrupt cognitive consistency. *Social Cognition*, 23, 353-386.
- Lemm, K. M., Lane, K. A., Sattler, D. N., Khan, S. R., & Nosek, B. A. (2008). Assessing implicit cognitions with a paper-format implicit association test. In T.G. Morrison & M. A. Morrison (Eds). *The psychology of modern prejudice*. Hauppauge, NY: Nova Science Publishers.
- Lowery, B. S., Hardin, C. D., & Sinclair, S. (2001). Social influence effects on automatic racial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842-855.
- Lun, J., Sinclair, S., & Cogburn, C. (2009). Cultural stereotypes and the self: A closer examination of implicit self-stereotyping.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1, 117-127.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akes, P. J., Haslam, S., & Turner, J. C. (1994). *Stereotyping and social reality*.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 Phinney, J. S. (1992).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A new scale for use with diverse

- grou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 156-176.
- Rudman, L. A., Greenwald, A. G., & McGhee, D. E. (2001). Implicit self-concept and evaluative implicit gender stereotypes: Self and in-group share desirable trai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164-1178.
- Rydell, R. J., McConnell, A. R., & Beilock, S. L. (2009). Multiple social identities and stereotype threat: Imbalance, accessibility, and working mem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 949-966.
- Sinclair, S., Lowery, B. S., Hardin, C. D., & Colangelo, A. (2005a). Social tuning of automatic racial attitudes: The role of affiliative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583-592.
- Sinclair, S., Hardin, C. D., & Lowery, B. S. (2006). Self-stereotyping in the context of multiple social identi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529-542.
- Steel, C. M. (1997). A threat in the air: How stereotypes shape the intellectual identities of the self.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1, pp.261-30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teel, C. M., Spencer, S. J., & Aronson, J. (2002). Contending with group image: The psychology of stereotype and social identity threat.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4, pp.379-440). New York: Academic Press.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7-24). Chicago: Nelson-Hall.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England: Basil Blackwell.
- Turner, J. C., & Oakes, P. J. (1989). Self-categorization theory and social influence. In P. B. Paulus(Ed.), *The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2nd ed., pp.233-275).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Turner, J. C., & Onorato, R. S. (1999).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the self-concept: A self-categorization perspective. In T. R. Tyler, R. M. Kramer, & O. P. John (Eds.), *The psychology of the social self* (pp.11-46). Mahwah, NJ: Erlbaum.
- Wojciszke, B. (2005). Affective concomitants of information on morality and competence. *European Psychologist*, 10, 60-70.
- Worrell, F. C., Conyers, L. M., Mpfu, E., & Vandiver, B. J. (2004).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scores in a sample of adolescents from Zimbabwe.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6, 35-59.

부록

부록 1. 유능성-무능성 속성 단어들의 친숙성, 능력차원, 긍정성 평균(표준편차), (예비연구 3)

선정단어	유능성 속성 단어			선정단어	무능성 속성 단어		
	친숙성 (SD)	능력차원 (SD)	긍정성 (SD)		친숙성 (SD)	능력차원 (SD)	긍정성 (SD)
1. 유능한	4.94 (1.18)	5.13 (1.26)	5.44 (1.09)	1. 우둔한	4.47 (2.29)	2.65 (1.62)	3.00 (2.09)
2. 뛰어난	5.06 (1.48)	5.06 (1.29)	5.38 (1.59)	2. 재능이 없는	4.41 (1.81)	2.59 (1.54)	2.24 (1.39)
3. 우월한	3.81 (1.52)	4.31 (1.66)	4.50 (1.67)	3. 게으른	4.82 (1.88)	2.53 (1.33)	2.06 (1.03)
4. 논리적인	4.44 (1.37)	5.25 (1.24)	5.25 (1.57)	4. 신중하지 못한	4.53 (1.81)	2.94 (1.82)	2.76 (1.82)
5. 인정받는	5.00 (1.03)	5.75 (1.18)	5.69 (1.14)	5. 경험이 부족한	5.29 (1.45)	3.35 (1.80)	2.59 (1.46)
6. 현명한	4.50 (1.46)	5.56 (1.41)	5.67 (1.23)	6. 계획성 없는	4.65 (1.69)	3.06 (2.08)	2.29 (1.61)
7. 잠재력	5.31 (1.14)	5.63 (1.63)	5.69 (1.62)	7. 실수	5.12 (1.83)	3.00 (1.62)	2.71 (1.72)
8. 성취	5.00 (1.67)	5.00 (1.63)	4.94 (2.05)	8. 큰 실책	4.71 (1.96)	2.82 (1.63)	2.24 (1.39)
9. 지능	4.81 (1.05)	5.56 (1.21)	5.19 (1.76)	9. 무능력	4.41 (1.77)	2.47 (1.70)	2.35 (1.58)
10. 1등	4.69 (1.99)	5.00 (2.07)	4.75 (2.21)	10. 비전문가	4.76 (1.99)	3.47 (1.55)	2.65 (1.54)

주. 7점 척도(친숙성: 1=전혀 사용하지 않음, 7=매우 많이 사용함; 능력차원: 1=매우 무능함, 7=매우 유능함; 긍정성: 1=매우 부정적임, 7=매우 긍정적임).

부록 2. 평가자 유형(한국인 평가자/ 동족의 평가자)조작을 포함한 취업 면접장면 스크립트, (본 실험)

[취업 면접장면의 시나리오]

※ 다음의 장면을 순서대로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 당신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면접을 보게 됩니다.
- 당신이 면접을 볼 순서가 돌아왔고, 면접은 단독으로 보게 됩니다.
- 면접심사위원은 총 4명으로, 모두 한국인[같은 민족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평가를 시작합니다.
- 심사위원 A는 당신의 국적과 출신지역에 대해 물어봅니다.
- 심사위원 B는 당신의 업무 수행능력에 대해 물어봅니다.
- 심사위원 C는 당신의 재능이나 특기에 대해 물어봅니다.
- 마지막으로 심사위원 D는 회사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질문을 합니다.
- 심사위원들은 당신에 대한 각자의 평가 점수를 합의한 뒤 면접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부록 3-1. 페이퍼-펜슬 형식의 암묵적 자기유능성 평가(paper & pencil format IAT) 예시 및 시행방법, (본 실험)

< 예시 >

	타인 /무능함	자기 /유능함	
무능성 속성단어 →	√	우둔한	○
	○	나	√
	○	유능한	√
타인 →	√	너	○

← 자기

← 유능성 속성단어

※ 참여자들은 총 7단계의 범주화 과제를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 각 단계마다 주어진 수행 시간은 20초씩으로, 실험자가 '시작하십시오.'라고 진행함과 동시에 범주화 과제를 시작하여 '그만하십시오.'라고 지시하면 하던 범주화 수행을 멈추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범주화하는 방법은 우선 상단에 제시된 범주 단어들을 확인한 다음, 가운데 세로로 정렬된 단어들이 해당되는 범주 방향(왼쪽 또는 오른쪽)의 동그라미 위에 √표시를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자기-유능성 일치 연합(타인+무능함[왼쪽]/자기+유능함[오른쪽])단계에서, 제시된 단어 '유능한', '나'의 경우는 각각 자기와 유능성에 속하는 단어이므로 각각 오른쪽에 √표시를 하고 '우둔한', '너'라는 단어가 제시될 때에는 각각 타인과 무능성에 속하는 단어이므로 각각 왼쪽에 √표시하게 된다. 이 때, 단어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풀어나가도록 하였으며 실수로 잘못 체크했을 경우, 수정하지 않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한다.

부록 3-2. I.A.T 과제시행(총 7단계)의 각 블록 별 항목과 범주 방향. (본 실험)

시행	목적	항목-왼쪽 √표시	항목-오른쪽 √표시
20	표적변별	타인	자기
20	속성변별	무능함	유능함
20	자기-유능성 일치 연합 연습 회기	타인+무능함	자기+유능함
40	자기-유능성 일치 연합 본 회기	타인+무능함	자기+유능함
20	표적 역변별	자기	타인
20	자기-유능성 비일치 연합 연습회기	자기+무능함	타인+유능함
40	자기-유능성 비일치 연합 본 회기	자기+무능함	타인+유능함

The Effect of the Evaluator Group on the Self-Stereotyping of the Southeast-Asian Immigrants in the Context of Multiple Social Identities

Ji-Hyun Hwang Do-Yeong Kim Heecheon Shin
Jouyeon Yi Hai-Sook Kim
Ajou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salience of ethnic identity and the evaluator group on the implicit as well as the explicit self-stereotyping of the Southeast-Asian immigrants in the context of multiple social identities. Furthermore, we also examined whether the effect of the salience of ethnic identity and the evaluator group on the self-stereotyping of the Southeast Asians was mediated by the salience of Koreans' stereotypes on the competence of the Southeast-Asian immigrants'. To examine these hypotheses, we asked the Southeast-Asian migrant participants to evaluate their own competence using both the implicit and explicit measures, in a hypothetical job interview situation in which the nationality of the evaluator and the salience of national identity was varied. The results showed that as expected, participants for whom the Southeast-Asian identity was made salient evaluated their competence less favorably when they thought the evaluator was a Korean (i.e., when their social identity was salient) than when the evaluator was a Southeast-Asian (i.e., when their personal identity was salient). In contrast, the self-evaluation of competence of the participants for whom the Korean identity was made salient was not different in terms of the nationality of the evaluator.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e implicit self-stereotyping demonstrated the same pattern as the explicit measures. However, the analysis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alience of Koreans' stereotypes regarding the competence of the immigrants for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identity salience and the evaluator group on self evaluation of competence, did not obtain any significant result. We discuss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Keywords: multicultural society, Southeast-Asian immigrants, identity, self-category theory, self-stereotyping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12월 09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2년 02월 08일
게재 확정일 : 2012년 02월 10일